

## ごあいさつ

当センターは、大阪各地域を対象として「文化遺産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模索しながら、日々調査、研究を進めております。

昨年度は、センターが活動を開始してちょうど3年目を迎えました。この節目となる3年目におよび、「文化遺産」をめぐる国際間比較をする必要性を感じました。近年、ユネスコの世界遺産登録に申請するため、文化遺産が存在する地域の中には、あらゆる推進事業が展開され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も登録されていなくても、「いったい誰のための文化遺産か」という問題がそこには存在しています。

そこで、大阪と歴史的に関係の深い東アジアの国から、日常的に「文化遺産」に携わっておられるパネリストをお迎えし、議論を試みよ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本シンポジウムでは、各地域の人びとの暮らしのなかで、「文化遺産」がどのように存在し、未来に向けてどのような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のか等について、中国、韓国、日本それぞれの立場から考えることを目的としました。

シンポジウム「人びとの暮らしと文化遺産」は、当センター開設以来、初めての国際シンポジウムとなりました。本シンポジウム開催にあたり、中国語、韓国語の通訳をそれぞれご専門の方にお願ひし、準備段階から当日にいたるまで、多大なるご尽力を賜りました。また、当日は、夏の風雨の激しいなか、168名もの皆さまにご来場いただきました。本シンポジウムにご協力下さった皆さまに、心より厚くお礼を申し上げます。

2008年11月30日

関西大学なにわ・大阪文化遺産学研究センター

センター長 高橋隆博

## 致 词

我们研究中心以大阪各地为对象，为了探索“文化遗产是什么”这个问题，天天在进行调查研究。

上一年度我们迎来了本中心开始活动的第三年。到了这个阶段，我们深深感到围绕“文化遗产”问题，有必要进行国际间的比较。近年来，为了向联合国教科文组织申报登记世界遗产，有些存在文化遗产的地域展开了各种推进活动，但不管是世界遗产是否能够登记，都存在着“为了谁的文化遗产？”这个问题。

因此，这次我们邀请在历史上与大阪关系密切的东亚诸国“文化遗产”的专家来研究讨论这个问题。

这次研讨会的目的是，中国、韩国、日本三者站在各自的立场来考虑：各地老百姓的生活之中，“文化遗产”的实际存在状况，以及面向未来所开展的有关活动，等等。

研讨会“老百姓的生活与文化遗产”是我们中心开设以来第一次的国际研讨会，我们请了汉语和韩语的翻译，他们从准备阶段到研讨会召开当天，给了我们许多帮助；还有，研讨会那一天，168位来宾冒着夏日的暴风雨光临会场。

在此，我们对各位的配合和支援，表示衷心地感谢。谢谢！

2008年11月30日

关西大学 浪速·大阪文化遗产学研究中心  
中心代表 高 桥 隆 博

## 인 사 말 씀

당 센터는 오사카 각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유산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색하며 나날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계기로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간의 비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신청을 위해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 안에서는 온갖 추진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세계유산 등록여부를 떠나 「대체 누구를 위한 문화유산인가」라는 문제가 그곳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사카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동아시아국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문화유산」에 종사하고 계신 페널리스트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논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심포지엄에서는 각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문화유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미래를 향해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중국, 한국, 일본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심포지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유산」은 당 센터 개설이래의 첫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본 심포지엄 개최에 있어 중국어, 한국어의 통역을 각각 전문가에게 부탁하고 준비 단계에서 당일까지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당일은 여름 풍우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심포지엄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1월 30일

관서대학 나니와·오사카문화유산학연구센터  
센터장 타카하시 타카히로